

韓·英語의 格(CASE) 比較

— 英作文 指導의 觀點 —

康 壽 彥

I 序 言

첫째, 本稿에 있어서는 『英語의 前置詞나 韓國語의 格助詞나 똑같이 格 (Case)의 一種이다』라는 見解를 전제로 삼는다. 이것은 格의 function을 form보다 重視하며¹⁾ 전치사구를 格相當句로 보는 立場이다.²⁾ 英語의 경우, 古期·中期를 거치는 사이에 대부분의 屈折語尾를 상실하여 形態上으로는 格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生成文法派도 “영어의 모든

1) 英語의 格에 있어서, 形態를 重視할 것인가, 機能을 重視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Leopold와 Jespersen의 論爭, Jespersen과 Sonnenschein 및 Curme사이의 論爭이 가장 有名하다. 그 論爭의 內容은 다음 文獻에 詳述되어 있다.

Leopold, W. J. 1932. “Form or Function as the Basis of Grammar?” In: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XXXIV. pp.415-431 (March, 1932)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pp.173 ff.

Sonnenschein, E. A. 1927. *The Soul of Grammar*. London: Cambridge Univ. Press. pp.1 ff.

Curme, G. O. 1935. *Parst of Speech and Accidence*. New York: Heath. pp.130 ff.

2) “Jespersen은 완고할 정도로 形態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現代英語에서는 이미 形態上的 구별이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對格과 與格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Sonnenschein은 機能이나 뜻을 감안하여 Germanic language의 格形을 예로 들어 對格과 與格의 구별이 現代英語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f a lady나 to a girl과 같은 前置詞+名詞까지도 이를 각각 屬格 및 與格의 相當語句로 보아 이를 格句(case-phrase)라 부르고 있다.” _____趙成植. 1974. 「英語文法論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pp.364-365.

2 는 문 집

case는 그 深層構造에 있어서 前置詞을 대동하고 있다.”³⁾라고 주장하며, Fillmore는 “前置詞, 後置詞, 格接辭는 모두 같은 基底要素 K (←Kasus=格)의 具現形”⁴⁾으로 보고 있다.

둘째, 本稿에 있어서는 『한·영어라도 本質의으로는 共通點이 많은 一따라서 서로 比較可能한 一言語이다』라는 生成文法論의 觀點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格形의 검토에 있어서는 意義素⁵⁾의 概念을 도입한다. 모든 人間言語는 語族을 넘어서서 普遍的인 성질이 意外로 많다. 이를테면 一人稱과 二人稱의 代名詞 區別이 없는 언어가 없으며, 圓唇前舌 母音이 있으면 圓唇後舌 모음도 반드시 있다. Subject-Verb-Object語順이 지배적인 言語는 항상 右邊分枝(right-branching)型이고, 한국어와 같이 SOV⁶⁾語順을 갖는 언어는 左邊分枝(left-

3) “...all noun phrases, in their deep structures, seem to have prepositions associated with them, even though these prepositions are frequently deleted from surface structure.” _____ Jacobs & Rosenbaum, 1968.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Mass.: Blaisdell, p.136.

4) “...prepositions, postpositions, and case affixes _____ semantically relevant or not _____ are all in fact realization of the same underlying element, say K (for Kasus). We may regard all of the case categories are therefore rewritten as K+NP.” _____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 Harms(eds.)1968.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p. 33.

5) 「單語의 音聲을 들었을 때 反射되는 意識內容 中 社會習慣의으로 나타나는 特徵」 또는 「最小自由形式이 나타내는 意味」_____全在昊, 1971. “意義素 記述에 대하여” 「金亨奎博士 頌壽紀念 論叢」서울: 一潮閣, p.716.

6) cf. Greenberg, J.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e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 (Univ. 3 & 4) In: Greenberg(ed.) *Universals of Language*. Mass.: M. I. T. Press. 또한, Ross는 gapping 規則을 發見하여, 영어와 같은 SVO言語는

“I ordered peaches, and Tom ordered cream, and Bill ordered oranges.”→

“I ordered peaches, and Tom cream, and Bill oranges.”

처럼 그 省略變形이 SVO+SO로 되지만, SOV言語는

“나는 peaches를, 림은 cream을, 빌은 oranges를 주문하였다.”

처럼 SO+SOV로 變形함을 지적하고 있다.

cf. Ross, J. R. 1970.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In: Bierwish &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The Hague: Mouton.

branching)型임도 확인되었다.⁷⁾ 특히, 格에 관하여 Fillmore는 “모든 言語는 그 深層構造에 있어서 格成分을 내포하고 있는데, 表層構造에 있어서의 格表示 有無는 문법규칙의 操作에 따라 유도된 결과에 불과하다.”⁸⁾고 보고 있다. 本稿도 가급적 이러한 prelexical structure의 普遍성과 類似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셋째, 本稿는 韓·英語의 格比較를 통하여 한국어의 格助詞와 영어의 前置詞 사이의 差異點·類似點을 구명하고, 이를 한국 학생의 英作文指導에 —특히 前置詞의 誤用을 最小化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는다.

II 格과 助詞·前置詞

세계의 모든 언어는 形態上으로 孤立語(Isolating Language), 附着語(Agglutinative Language), 및 屈折語(Inflexional Language)로 分類할 수 있는데,⁹⁾ 格關係의 표시에 있어서 孤立語는 語順에 의존하며, 屈折語는 格形變化에 의존하고, 韓國語와 같은 附着語(또는 添加語)에 있어서는 助詞에 의존하고 있다.

이 格問題에 관하여 崔鉉培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 말의 ‘케이스’는 이름씨, 대이름씨 그 자체 안의 한 변화이지마는, 우리말에서는

7) 修飾句節이 英語에 있어서는 오른쪽(被修飾名詞의 앞)에 나타나고 韓國語에 있어서는 왼쪽(被修飾名詞의 뒤)에 나타난다.

① a house across the street : 길 건너편에 있는 집

② John은 씩은 알을 낳은 암닭을 죽인 개를 기르는 Mary를 사랑한다.

John loves Mary who keeps a dog that killed a hen that laid an egg

that was rotten. (趙炳泰. 1973. “韓英兩語 文法比較의 새로운 可能性” 『新英語教育』 9-10. p.15에서 引用)

8) “...the grammatical notion ‘case’ deserves a place in the base component of the grammar of every language. The generative grammarians have for the most part viewed case markers as surface structure reflexes, introduced by rules, of various kinds of deep and surface syntactic relations.” Fillmore, *op. cit.*, pp.2-5.

9) 이 밖에 抱合語(Incorporating language)를 덧붙여 四種으로 分類하기도 한다. 抱合語란, Eskimo語, American Indian語처럼 構成要素가 分析不可能할 정도로 結合되어 있는 言語를 말한다.

4 는 문 집

이름씨나 대이름씨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토를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보이거나 : 이것이 우리말이 덧붙는 말(添加語)의 한 가지인 특질이다. 그리하여 그 ‘자리’를 보이는 토를 자리 토씨(格助詞)라 한다.”¹⁰⁾ 따라서

(1-1) 아버지 아들 사랑한다.

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構文上 어떠한 關係에 서 있는지는

(1-2)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1-3) 아버지를 아들이 사랑한다.

와 같이 각각 適當한 格助詞를 붙여 주어야 되는 것이다.

한편, 英語는 원래 屈折語이었지만 이미 分析的 傾向이 뚜렷하여, 前置詞 없이는 語와 語의 關係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령 “The boy hid the present the mother the cupboard.”라고 어린이가 붙숙 말하였을 경우, 聽者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어머니로부터의 present인지, 어머니에게 드리는 present인지, 찬장의 앞인지, 옆인지, 또는 뒤인지(in the cupboard, beside it, behind it, etc.)아리송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 語와 語의 關係를 보이는 것이 前置詞의 役割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를 나타내는 것은 非但 전치사만은 아니다. The boy와 hid, hid와 the present의 關係는 語順이 표시하고 있다. 이 現象은, 現代英語인 경우 主格과 目的格이 同一語形일지라도 아무런 支障이 없음을 뜻한다. 古期英語에 있어서는 語形變化가 格을 명시 하였으므로 전치사는 格의 補助의 存在에 지나지 않았지만, 屈折語尾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에는 前置詞의 役割은 크게 증대하여 語順과 더불어 格의 機能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전치사는 副詞로부터 分化 發達한 것으로서¹¹⁾ 원래 動詞에 結付되지(cf. God him spræc to. = God spoke to him.), 名詞·代名詞에 結付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 位置도 名詞 뒤에 있었다. 現代英語로 말한다면 He is the town in. 처럼 되어 있어서 the town 자체가 이미 處格(Locative)을 나타내고, 副詞 “in”은 그 處格의 觀念을 강화하는 剩餘의 존재이었다.

10) 최현배, 1954.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p.614.

11) all the year round, read the book through는 옛 用法의 痕迹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名詞의 格 補強』이기 때문에 점차 動詞보다는 名詞쪽으로 結付되어 갔으며, 『前置詞+名詞』가 하나의 單位로 意識되어 갔다. 그렇게 되니 그 어순도 音調上 意味 負擔量이 큰 名詞앞으로 移動하여, 오늘날과 같은 前置詞의 位置와 機能으로 定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前身은 어디까지나 副詞였기 때문에 아직도 前置詞에는 『副詞的 潛在力』이 있어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Never use a preposition to finish up a sentence with.* 와 같은 後置現象을 볼 수 있으며, 또한 *The book fell off the table.* (cf. *The book fell off.*)와 같은 構文에 있어서도 “adverbial force”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皮相的으로는 名詞와 結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意味上으로는 옛날처럼 動詞쪽과 결합하려는 傾向이 있으며, 이 傾向이 새로운 造語力을 가진 verb-adverb combination¹²⁾의 母體를 이루고 있다.

이에 比하여, 한국어의 格助詞는 “토”라는 本性 때문에, 영어의 前置詞처럼 遊離할 수 있는 부사적 性格을 갖고 있지 않다. 이 點도 韓·英語의 比較에 있어서 留意할 重要的 差異의 하나일 것이다.

Ⅱ 格表示의 臨床的 比較

3-0 한국어는 모든 格의 表示를 後置詞¹³⁾ 라고도 할 수 있는 助詞에 의존하고, 영어는 前置詞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英語의 主格·對格만은 語順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¹⁴⁾ 따라서 主格·對格의 比較分析만은 前置詞 vs. 格助詞라는 本稿의 觀點을 초월한 “韓·英語의 比較” 次元에서 고찰하고, 이어 冠形格, 副詞格助詞 등의 의미기능을 英語前置詞에 관련시켜 比較 分析하기로 한다.

12) cf. Kennedy, A. G. 1935. *Current English*. Mass. : Ginn. pp.297-303.

Robert, P. 1954.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Harper & Row pp.121 ff.

13) 李承旭. 1957. “國語의 postposition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pp.494-509.
柳龜相. 1968. “國語의 後置詞” 「語文論集」 11, pp.22-45 참조.

14) 屈折語는 原則上 語形變化에 의하여 格을 표시하지마는 그 具體的인 關與度는 言語에 따라서 다르다.

3-1 主格·對格의 意味分析

韓國語의 대표적인 主格¹⁵⁾ {—가/이} 對 {—는/은}의 差異를 論할 時, ① {—는/은}은

格	語	(韓 國 語)	라틴어	독일어	英 語
主 格		주님이/께서	dominus	der Meister	the master
對 格		주님을	dominum	den Meister	the master
與 格		주님에게/께	domino	dem Meister	to tha master
屬 格		주님의	domini	des Meister	of the master
奪 格		주님으로부터	domino	vom Meister	from the master
呼 格		주님이시여	domine	Meister!	Master!

즉, 라틴어는 모든 格이 語形變化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지만, 英語의 主格·對格은 語形變化 zero 이며 그 格은 語順이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독일어의 奪格은, 英語의 大部分의 格이 그러하듯이, 前置詞에 의하여 표시한다. 呼格은 英語에 있어서나 독일어에 있어서나 이를 表示할 방법이 없으며, 文으로부터 遊離된 位置라든지 또는 無冠詞라는 特徵으로 辨別할 수밖에 없다.

15)

임자 자리 토 {

에사 {

 남으로 {

 흥소리 뒤에...가, 는.

 당소리 뒤에...이, 은.

 덩이로에서.

 높힐께서, 깨우서.

}

}

(최현배 『우리말본』 p. 616에서 引用)

그러나 學者에 따라서는 {—는/은}을 格助詞 아닌 特殊助詞로, 혹은 格助詞의 下位區分인 不定格助詞 또는 提示格으로 分類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研究論文이 있다.

1. Kim, Han-Kon. 1967. "A Semantic Analysis of the Topic Articles in Korean and Japanese" 『語學研究』 第Ⅲ卷 第二號.
2. Lee, Kiyong. 1969. "A Syntactic Analysis of /-nin/ and /-ka/" 全北大學校 論文集 第11輯.
3. Oh, Choon-Kyu. 1971. *Aspects of Korean Syntax*. University of Hawaii
4. 任洪彬. 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國語研究』28.
5.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niversity
6. Yang, In-Seok.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語學研究』 第Ⅱ卷 第2號.
7. Yang, Dong-Whee. 1975. *Topicalization and Relativization in Korean*, 汎韓書籍.
8. 蔡琬. 1976. "助詞 '는'의 意味" 『國語學』 第4輯.

對立, 強調, 限定, 完了, 條件, 反覆을 뜻하는 topic-comment 構造이다.¹⁶⁾ ② {-가/이}는 現場의 敘述이요, {-는/은}은 非現場의 敘述이다.¹⁷⁾ ③ {-가/이}는 從屬節안에 收容 “拘置”되지만, {-는/은}은 從屬節 밖으로 벗어나서 文尾까지 支配한다¹⁸⁾ 등, 그 意味機能의 差異를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基礎的인 差異는 『初出』과 『既出』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이}는 初出의 情報를 제공하고, {-는/은}은 既知의 情報를 제시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說話”는 흔히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옛날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날마다 글만 읽으면서 돈을 벌 줄 몰랐습니다.” (金耀燮, 「선비 떡장수」의 말머리)

말머리의 初出情報에는 “가난한 선비가...”라고 {-가}가 쓰이고, 이어 “가난한 선비는...”라고 既知의 情報에는 {-는}이 쓰이고 있다. 이에 對應하는 英文은: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cholar who was badly off. The poor scholar only read books and did not try to make money.

처럼 되어, {-가} 쪽에는 “a”가 붙고, {-는} 쪽에는 “the”가 붙는다. 이렇게 初出의 정보에는 不定冠詞, 既知의 정보에는 定冠詞가 쓰인다는 것은 韓國語의 {-가/이}對 {-는/은}의 對照的 機能과 一脈相通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 外國人들이 初出의 {-가/이}와 既知의 {-는/은}을 混同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한 外國人은 『나의 故鄉』이라는 題目으로 다음과 같이 作文한 적이 있다.

*나의 고향이 미시건주입니다. *미시건주가 미국 북부에 있습니다...

作文題目이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既知의 情報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題

16) 任洪彬, 1972. 前揭論文 參照.

17) 눈 앞에 展開되는 事實을 그대로 描繪하는 경우에는 “달이 아름답군.”과 같이 {-가/이}가 쓰이고, 現場에서 떨어져서 敘述할 수 있는 固定된 觀念에 對대하여는 “항구의 달은 적적해.”처럼 {-는/은}이 쓰인다.

18) 從屬節안에서 從屬節의 主格役割만을 할 때는 {-가/이}가 쓰이고, 從屬節·바깥까지 支配하는 主体로서 役割할 때는 {-는/은}이 쓰인다.

*저는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저가)

參考 圖示: 저가 고향을 \ 떠날 때 / 어머니는 \ 울었습니다.

8 논 문 칩

目を {—는/은}으로 提示하고 그것에 대한 解說·判斷을 내리는 文脈展開이어야 할 텐데, 이 作文은 提題文을 無題文으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初出’, ‘既知’의 認識은 특정의 指示對象(referent)과도 관련되어

(1-a)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The book...

(탁자위에 책이 있다. 그 책은...)

의 存在文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應用이 나온다.

(1-b) The book on linguistics would be helpful.

(1-c) A book on linguistics would be helpful.

(1-b)는 “그 言語學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特定書籍이 話者·聽者 양 쪽의 염두에 있으며, would의 假定은 “그 冊을 사용하면...”을 뜻한다. (1-c)는 막연히 “言語學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더 細分하면 다음 (A) (B)두 가지 경우를 想定할 수 있다.

(A) 話者 자신은 特定の 冊을 생각하고 있지만, 聽者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

(B) 특정서적이 念頭に 全然 없고, 다만 “言語學 書籍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使用한다면...”와 같이 存在에 관한 假定을 內包하는 경우이다.¹⁹⁾

傳統인 英文法에 있어서는 主語와 目的語²⁰⁾를 기본적인 概念으로 다루면서도 이들에 대한 명확한 定義를 내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Chomsky는 主語를 phrase-marker에 있어서의 “NP와 S와의 관계”, 目的語는 “NP와 VP와의 관계”라고 簡明하게 定義하였다.

한편, 國語文法에 있어서는 西洋文法의 影響으로 主語·目的語의 개념을 採擇하였지만, 近來 이에 反對하는 意見²¹⁾도 擡頭되고 있다.

Fillmore는 主語概念·目的語概念이 조금도 意味解釋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19) cf. A true friend would do so. (眞正한 友人이라면 그렇게 하리라)

20) 主語와 主格, 目的語와 對格은 서로 概念과 次元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便宜上 主語=主格, 目的語=對格으로 간주하고 論述을 進行시킨다.

21) cf. “한국어의 특성으로는 叙述語만이 主成分이며, 主語는 그 叙述語에 附屬된 非必須的인 要素이다” 李承旭, 1975. “主語의 統辭에 관한 考察” 『現代國語文法—研究論文選(4)』 啓明大學出版部. p.238.

다음과 같은 例文을 들고 있다.²²⁾

- (2-a) The window broke.
 (2-b) John broke the window.
 (2-c) A hammer broke the window.

이 break는 同一한 뜻을 가진 動詞인데도 意味解釋에 있어서는 — 따라서 深層構造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3個의 異質項目이라는 것이다. (2-a)의 주어는 動作의 對象이며(objective), (2-b)의 주어는 動作主이며(agentive), (2-c)의 주어는 道具이 기때문이다(instrumental). (2-b)와 (2-c)는 一見 서로 같은 構造인 것같지만, 실은 (2-b)에는 instrumental phrase 를 添加할 수 있어도, (2-c)에는 添加할 수 없는 構造的 差異를 지니고 있다.

- (3-a) John broke the window with a hammer.
 (3-b) *A hammer broke the window with a chisel.

또 (3-a)와 (3-b)의 主語를 and로 連結할 수도 없다.

- (3-c) * John and a hammer broke the window.

이렇듯 break는 主語·目的語의 選擇에 각각 다른 制約을 받지만, 名詞句 the window는 主語도 될 수 있고 (cf. The window broke.), 目的語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意味解釋에 있어서는 同一한 機能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3-b)와 同型인 文章 “The car broke the window with a fender.”는 不可能하지만

- (4-a) The car broke the window *with its fender*.
 (4-b) *The car's fender* broke the window.

는 모두 可能하다. 이렇듯, 道具格 전체를 主語로 삼거나, 아니면 所有者만을 主語 자리에

22) Fillmore, *op. cit.*, p.21 ff

남겨 놓고 道具格의 殘餘部分 with에 隨伴시킬 수 있다는 것은²³⁾ (4-a)와 (4-b)는 결국 同一한 深層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主語는 文의 主要構成要素가 아니라, 修飾語로부터 유도된 非主要構成要素임을 示唆하고 있다. Fillmore의 最底部規則 $S \rightarrow \text{Modality} + \text{Proposition}, P \rightarrow V + C_1 + \dots + C_n$ ²⁴⁾도 여기에 그 根據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The door opens easily.의 深層에 있어서는 the door는 open의 直接目的語이며, 그 意味 構造는 『문이 -』가 아니라 『연다, (누가), (문을), 쉽게』인 셈이다. 다만 “문을”이란 對象格이 주어로 topicalize 되었기 때문에, 또 “누가”에 대한 情報가 없기 때문에 passivize 되어 “그 문은 쉽게 열린다.”로 表現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는/은} 構造”는 topic-comment 構造이며, 体言에만 連結되는 것이 아니라²⁵⁾ 副詞와 用言에도 연결되어, 焦点(focus)을 형성하는 “topicalization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He loaded the truck with hay.의 경우에도 the truck가 直接目的語의 위치에 있지만 『트럭을 전초로 실은』것은 아니다. 表層構造에 있어서는 with 以下가 器具格을 나타내지만 그 deep case는 對象格(=목적격)이며 “전초를 트럭에...”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前置詞나 語順에는 固定된 意味機能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同一前置詞의 多義性을²⁶⁾ 설명해 준다.

23) 任意選擇을 뜻함. “The rules for choosing a subject allow an option in the case.”— Fillmore, *op. cit.*, p.23.

24) “P(命題)는 V(動詞)+A(動作主格), V+O(對象格)+A, V+D(與格), V+O+I(道具格)+A 등의 어느 定式으로도 表示될 수 있다.”라는 뜻임.

25) cf. 蔡琬, 1976. “助詞「-는」의 意味” 『國語學 4』 國語學會, p.94.

또한 李廷政도 “文頭에서의 {-는}은 topic를 표시하고, 문장 중간에서의 {-는}은 對照를 표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cf.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niversity.

26) 姜亨烈은 前置詞의 多樣性을 다음과 같이 例示하고 있다. (cf. 姜亨烈, 1977. “Case Grammar 에 입각한 영·한 양어의 Syntax의 비교 연구” 『영어영문학』 No. 62, pp.95-96)

DEEP FUNCTION	USAGES OF WITH-PREPOSITIONAL PHRASES :
INSTRUMENTAL	He broke the window <u>with a hammer</u> .
COMITATIVE	He flew to Miami <u>with a commerical pilot</u> .
PREDICATE	He died <u>with reluctance</u> (PREDICATE—He was reluctant.)
OBJECTIVE	David planted his garden <u>with corn with a hoe</u> .
with Instrument	Objective Instrumental

한국어의 對格形態 {—를}도 조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자그만치 17가지 機能을 갖고 있다.²⁷⁾

- (1) 他動性 動作의 직접적 對象이 됨을 보인다.
- (2) 他動性 동작의 間接的 對象이 됨을 보인다.
- (3) 動作主体가 대상으로부터 離脫하는 起點이 됨을 表示한다.
- (4) 經由의 場所를 보인다.
- (5) 行動志向의 目標을 표시한다.
- (6) 方法·資料·基準·資格·價値가 되는 對象임을 표시한다.
- (7) 交換의 對象이 됨을 보인다.
- (8) 呼稱의 對象이 됨을 보인다.

POSSESSIVE or Attributive	The shelf with some books on it... (The shelf has some books on it.)
OBJECTIVE with Locative	John presented <u>Mary with a gift.</u> Objective
OBJECTIVE with Locative	The sea teems <u>with fish.</u>
OBJECTIVE with Stative Comitative	John is happy <u>with his wife.</u>
ABSOLUTE CONSTRUCTION	<u>With the door (being) wide open,</u> the bug can get in.
OBJECTIVE after Predicate	He is acquitted <u>with the music.</u> She is popular <u>with sailors.</u> He is a favorite <u>with teenagers.</u>
PROXIMITY EXTENT TOOL	The hammer <u>with the screwdriver</u> broke the window. He bought it <u>with \$100.00.</u> He <u>used a saw</u> to cut the board. → He cut the board <u>with a saw.</u>
MATERIAL	I <u>used up the glass</u> to make the window. → I made the window <u>with the glass.</u>
MANNER	He handed in his assignment <u>with regularity.</u>

(즉, with prepositional phrase의 'with'는 15種의 뜻을 表現하고 있다.
27) 全在昊, 1972. "現代語 助詞의 調查分析(1)" 「語文學」第26號. pp.80-104.

- (9) 使役의 대상임을 表示한다.
- (10) 行動하는 時間을 나타낸다.
- (11) 主体의 行動하는 回數 및 차례를 나타낸다.
- (12) 行動對象의 數값이 됨을 표시한다.
- (13) 不具的 動詞와 結合하여 語·節間의 文法的 關係를 나타낸다.
- (14) 意向의 焦點이 됨을 표시한다.
- (15) 動詞 또는 副詞類의 強調機能을 갖는다.
- (16) 叙法 또는 文構造의 對象임을 표시한다.
- (17) 主格機能, 冠形格機能을 갖는다.

어느 言語에서든지 表層構造(SS)의 뜻은 深層構造(DS)의 뜻에 依存하게 마련인데, SS의 主語나 目的語의 Deep Case는 여러가지로 變轉한다. 이렇게 SS의 主語·目的語가 固定的인 Deep Case를 가지지 못하는 점이 종종 言語와 言語 사이의 誤譯을 초래한다.²⁸⁾

3-2 冠形格의 意味分析

3-2-0 한국어의 冠形格助詞는 {一의} 하나뿐이지만 그 意味機能은 多樣하여

28) 다음의 例는 姜亨烈의 前揭論文에서 引用한 것도 있으나 그밖에 本稿에 收錄된 誤譯見本은 濟州大學의 英語教室에서 발견된 것이 그 大部分이다.

- | | |
|--|------------------------|
| 1. They loaded <u>a ship (D.O.)</u> with cement.
Locative | * 그들은 배를 시멘트로 실었다. |
| 2. <u>The Key(S)</u> will open the door.
Instrument | * 열쇠가 문을 열 것이다. |
| 3. <u>The garden</u> swarms <u>with the bees.</u>
Locative Objective | * 정원이 벌로 들끓는다. |
| 4. He asked a question <u>of Mary</u>
Dative | * 메리에 관한 질문을 했다. |
| 5. I require the answer <u>of you.</u>
Dative | * 당신에 관한 답을 요구한다. |
| 6. He built <u>himself</u> a new house.
Benefactive | * 그는 그 자신이 새로운 집을 지었다. |
| 7. John is easy to please.
Embed S, Obj-to Subj-Rais | * 존이 즐기기가 쉽다. |
| 8. John is eager to please.
Equi-NP-Dei | * 존이 즐기기를 열망한다. |
| 9. <u>Poison</u> kills many children in the country each year.
Instrument | * 독이 아이들을 죽인다. |

- 敘述의 主体 (민족의 단결 과학의 발전)
- 行動的 客体 (조국의 통일 경제의 건설)
- 同格 (백두의 영봉, 학자의 울곡)
- 全体·本体 (꽃의 향기 황소의 힘)
- 所有者·保有者 (나라의 재산 영화의 주인공)
- 數量 (하루의 휴식, 절반의 인구)
- 特性 (불 후의 명작, 절세의 미인)
- 比喻 (강철의 의지, 황금의 물결)
- 目標 (연구의 자취, 승리의 길)
- 處所 (꽃의 나비, 대구의 사과)
- 時間 (새벽의 공기, 옛날의 서울)
- 材料 (벽돌의 담, 인의 장막)

등을 內包하고 있다.²⁹⁾

한편, 이 冠形格助詞에 대응하는 英語 前置詞는 결코 of 만은 아니지만, 그 of 하나만 하더라도 主格關係, 目的格關係, 同格關係를 비롯하여 所有, 部分, 種類, 分離, 由來, 起源, 比喻, 原因, 動機, 材料, 性質, 構成 要素등을 나타낸다.

이렇듯, “-의”와 “of”의 皮相的 類似性은 源泉의인 모국어 model의 영향과 더불어 英語 前置詞의 빈번한 誤用을 초래하고 있다.

3-2-1, 흔히 “나는 J大學의 學生이다”를

(5-a) I am a student of J University.

라고 英譯하지마는, 이 표현은 a student of English (cf. study English)의 用法과 혼동하게 하여, 그 意味機能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즉, 그러한 模糊性의 原因은 a teacher at K High School와 a teacher of English의 差異를 無視하는 데 있으며, 그 差異란 결국 變形後의 自動詞構文 “I study/teach at K High School.”와 他動詞構文 “I study/teach English.”의 차이와 同種인 것이다.

3-2-2 冠形格에 대응하는 英語 前置詞로서는 of 외에 to, for가 있다. “Secretary of A”는 A라는 協會·團體의 秘書·書記를 가리키고, “Secretary to B”라고 하면 B라는 人士의 個人秘書를 뜻한다. “건물의 入口”는 the door of the building로도 좋지만 “房으로 통하는/들

29) 上記 分類과 例文은 金敏洙, 1970.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합번호) pp.30-31에서 引用.

14 는 문 집

어가는 入口”의 뜻으로 the door to the room라고 말한다. “J大學의 入學試驗”도

(5-b) the entrance examination of (또는 to, for) J University

와 같이 세 가지 前置詞 用法이 가능하다.³⁰⁾

그밖에 “의”와 “of”가 對應하지 않는 것으로는 an engagement for this evening (오늘 밤의 約束)과 같은 경우가 있으며, 또 “著書의 表題”는

(5-c) “Great Expectation” is the title of a book.

처럼 of 이지만, 장차 命名하게 될 書名은

(5-d) Have you chosen a title for your story?

처럼 for 이다.

3-2-3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의 英譯은 He took her by the arm.가 일반적인 표현이고, He took her arm.는 例外的인 표현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는 問題點이 두 개 있는 셈이다.

첫째, 어째서 한국인에게는 奇異하게 보이는

(A型) He took her by the arm.

와 같은 表現方式을 영어에서 쓰는 것일까?

둘째, A型이란 表現方式이 있는데도

(B型) He took her arm.

30) the entrance examination to J University의 ‘to’는 entrance와의 呼應에 應하며, ‘of’와 ‘for’는 the entrance examination과 J University의 關係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love of God, love for God 에서 보는 것과 同一한 用法이다. 前置詞 用法에 있어서 이렇게 ‘to’와 ‘for’가 종종 動搖하는 것은 ‘for’도 OE, ME時期에 與格을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cf. Takanobu Otsuka et al (eds.) 1959, *The Kenkyusha English Grammar Series* III. Tokyo: Kenkyusha. pp.2248-2252. 이러한 現象은 한국어의 口語에 있어서 “서울에 갔다/서울로 갔다.”의 混用과도 聯關지을 수 있다.

라는 표현방식이 共存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우선 A型和 B型の 意味差異를 알기 위하여 便宜上 A型和 同型인 hit the nail on the head를 分析 檢討하여 본다. 「못」의 머리部分을 때리면 「못」全体가 나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비록 行爲의 發端에 있어서는 the head of nail가 行爲의 對象이 되었지만 終結까지 포함하는 行爲全体를 바라보는 觀點에서는 우선, 「못 全体」를 目的語로 삼아 “hit the nail”라고 表現하여야만 하고, 그 後尾에 行爲起點인 “on the head”를 ‘添加하는 것이 보다 適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못의 一部分」이 아니라, 「못 全体」를 相對하는 行爲이기 때문에 hit the nail on the head가 論理的인 表現으로 容認되기에 이른 것이다. He took the decanter by the neck,에 있어서도, 「병의 목」을 잡은 것은 병 全体를 들어올리는 行爲의 發端에 不過하고, 行爲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병 全体」이며, I decided to take the bull by the horns,에 있어서도 相對는 「황소의 뿔」만이 아니라 그 황소의 (또는 그難局의) 巨大한 壓力 全部이다.

이렇게 全体를 相對할 경우에는 hit the nail on the head型이 쓰이지만, “만지다” 정도의 微微한 行爲의 경우에는 對象 全体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a) Can you touch *the top of the door*?

(6-b) He touched *the keys of the piano*.

와 같이 B型 (α of β 型)이 쓰인다.

그러나 같은 touch의 目的語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無生物 아닌 有情體인 「인간」이라면 그 表現方式은 달라진다. 無生物이면 物理的인 反應이 있을 뿐이지만, 상대방이 人間이라면 물리적 반응 외에 心理的인 反應—全人格的인 반응, 心的인 緊張—까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表現方式은 A型 (I took her *by the arm*, 型)을 擇하게 되어:

(6-c)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혀 놓았다.

I touched her *on the shoulder*.

(6-d)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였다.

She kissed him gently *on the forehead*.

(6-e) 나의 어깨를 흔들었다.

She shook me *by the shoulder*.

와 같이 쓰인다.

두번째의 問題 즉, A型(He took her *by the arm.*)과 並存하는 He took her arm. 라는 B型은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에 대하여는 그 文脈環境을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i) 行爲의 對象人物을 全体的으로 意識할 수 있는 能力이 主語에게 없을 경우. cf. The baby pulled *its father's hair.*

幼兒는 다만 “아버지”의 머리털이 가까이 있으니 잡아당기는 것이며, 아버지의 人格을 意識하거나 心的인 緊張을 느끼거나 하지않는다. 또 “아버지”의 몸 全体를 物理的으로 움직일 可能性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The baby pulled its father *by the hair.* 가 도리어 不自然스럽다.

ii) 主語와 目的語가 서로 精神的인 緊張을 일으킬 만한 關係에 있지 않을 경우.

cf. He took *his mother's arm* then, and they walked up and down the platform together.³¹⁾

이것은 어린 少年이 無意識的으로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 緊張과는 距離가 먼 행위이다.

강아지가 장난으로 손을 핥았을 경우에는 The dog licked *my hand.* 가 自然스럽지만, 개에게 敵意가 있다면 그 행위의 對象은 “나의 손”에 局限되지 않고, “나 全身”이 苦痛·傷害를 받기 때문에 The dog bit me *in the hand.* 라고 해야 할 것이다.

iii) 心的인 緊張 없이 가벼운 氣分으로 할 수 있는 行爲의 경우. cf. He patted *her shoulder* and drew her down into a chair. 그러나 같은 “pat”도 A型으로 고치는 것이 適切할 때가 있다. 다음은 한 강아지의 눈에 비친 光景이다.

A climax was reached when, in the course of some barely intelligible back-chat, Mike leant forward and *patted Millicent on the knee.* —(Evelyn Waugh)

叙述者인 강아지는 自己를 飼育해주는 마음씨 좋은 少女 Millicent가 나쁜 Mike와 友人 以上の 關係에 빠질까 조마조마하고 있다. 그 Mike의 손이 이제 Millicent의 무릎에 닿는다. 이것은 그 강아지로서는 默過할 수 없는 重大事이다. 이러한 느낌이 A型 表現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Emile and the Detectives*, translated by Eileen Hall from: Erich Kästner, *Emil und die Detektive.*

相互間에 「異性意識」이 얹어진 夫婦 사이, 父母와 子息 사이의 kiss는 心的 緊張이 거의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B型 (He kissed *her cheek*.)이 쓰인다. cf. He hasn't kissed his wife *on the mouth* for years.

iv) 상대방의 人格을 無視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傍若無人한 행위로 보이는 경우.

She passed by the table at which they were sitting, and *he took her arm*.

“Come and sit by my side, dear child, and let us play the divine comedy of love.”³²⁾

文中의 she는 연을 지나가던 娼婦, he는 主人公 Philip의 友人 Cronshaw이다. 아무리 娼婦라 하더라도 그녀의 人格이나 그녀의 反應을 無視한 채 팔을 낚이제는 Cronshaw의 행동이 叙述者 Philip의 눈에는 傍若無人한 짓으로 비친다. 그 느낌이 *took her arm* 이란 表現으로 나타나고 있다.

v) 事態가 火急하여 相對者의 人格에 대한 考慮 따위는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cf. And he *grasped my arm* as if to hurry me away from the spot. — (Henry Miller)

vi) 行爲의 對象이 自己自身인 경우. cf. She paused, *patted her breast*, and belched. — (George Orwell) 제몸에 제 손이 닿는데 心的 緊張이 있을 리 없으니 A型은 不適合하다.

3-3. 副詞格의 意味分析

3-3-1 處所를 나타내는 格

한국어에는 處所·位置를 나타내는 格助詞로서 {—에/에서}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영어 前置詞로서는 at, in, on이 있다. at는 어떤 場所를 “全体속의 限定된 局所”로 意識하는 경우에 쓰이고, on은 “平面”을 나타내며, in은 “어떤 ‘둘러싸인’ 空間안”을 뜻한다.

한국어의 {—에/에서}는 空間의 上下는 나타내지 않으므로, 必要하면 「~위에, ~속에, ~안에」라고 上下關係를 添加表示하여야 한다. 따라서 There is a book on the table.는 “책상에 冊이 있다.”가 아니라 “책상안에 冊이 있다.”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곧 韓·英

32) W. Somerset Maugham, *Of Human Bondage*, Chapter 42.

語의 意義素의 差異이며, 表現의 差異이다. 같은 韓國語에 있어서도, {-에}와 {-에서}의 差異를 金昇坤은 다음과 같이 圖示하고 있다.³³

에	에 서
不定處 (位置)	定處
停止性	流動性
時 · 間	時間 (始作)
原 因	—
方 向	方向
目的地 (到達點)	出處 (出發點)
限 度 (割當)	—
對 象	—
緣 由	—
抽象的 位置	抽象的 位置

이 圖示에서 두드러진 點은, 첫째 密着固定性 [+fixedness]과 流動性 [-fixedness]의 對照이다. 즉, {-에}는 對象物이 密着固定되어 있는 場所를 나타내고, {-에서}는 어떤 動作·行사가 일어나는 場所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음 文 가운데에서 (7-b), (8-b)처럼 말할 수는 없다.

(7-a) 全國體典이 仁川에서 있었다.

(7-b) *全國體典이 仁川에 있었다.

(8-a) 顯忠祠는 忠清道에 있다.

(8-b) *顯忠祠는 忠清道에서 있다.

두번째의 對照點으로서 焦點化 [+focus]와 非焦點化 [-focus]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9-a) 學校에 큰 騷動이 있었다.

(9-b) 學校에서 큰 騷動이 있었다.

33) 金昇坤, 1972, “國語助詞의 職能考” 『국어국문학』 58-60 합병호, p.118에서 引用.

한편, 崔鉉培는 {-에}를 『닿는 데』, {-에서}를 『움직임이 되는 데』라고 分類하고 있으며 (cf. 「우리말본」 p.620), 金澈洙는 {-에}를 位格, {-에서}를 位格과 奪格과의 複合形으로 보고 있다. (cf. 「국어국문학」 49·50 합병호, pp.35-36)

(9-a)와 (9-b)는 모두 成立되지 않는 前者에는 [+focus], 즉 “**한 곳 아닌 學校에**”라는 焦點化의 意味가 담겨진 構文으로 해석된다.

다음, 英語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 (10-a) My father works *at* a factory.
- (10-b) My father works *in* a factory.
- (10-c) I found the purse *in* my pocket.
- (10-d) I found my purse *on* the table.

에 있어서, *at*는 場所가 局所的 [+point]으로 把握되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10-a)는 “한 組織體로서의 工場”이라는 地點를 가리키고, *in*은 둘러싸인 區劃物의 內部를 뜻하기 때문에 (10-b)는 어딘가 “工場內部”에 있는 場所를 가리키고, (10-c)와 (10-d)는 안쪽과 바깥 表面을 對照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意義素를 把握하고 있으면 :

- (11-a) By the suggestien of Professor L *in*(→*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 have given up the idea.

의 *in*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大學」이라는 特定 大學을 가리킬 경우에는 *at*를 쓰는 것이 옳다. 이것은 그 大學을 “局所的”으로 捕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例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 (11-b) He teaches *in college*(또는 *at a university, in university, at the university, in the university.*)
- (11-c) He teaches *at Hunter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Monterey High School, at Monterey Elementary School.*)

例文 (11-b)는 一般的인 水準을 나타낸다. 따라서 He teaches *in college*. = He is a college teacher. 를 뜻하고, *university*의 경우에는 話者가 그 教育시설을 心的으로 어떻게 捕捉하느냐에 따라 *in* (하나의 共同體로서의 대학)도 되고 *at* (건물로 意識하는 경우)가 되기도 한

다. 그러나 例文(11-c)처럼 固有名詞를 隨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t라야 한다. 固有名詞란 바로 “局所的 意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1-d) His son is now *in school*. (*at school*).

의 *in school*는 “在學中”을 뜻하고, *at school*는 “학교에 가서 授業을 받고 있는 중이다.”를 뜻한다. 前者는 What does he do?에 대한 답이고, 後者는 Where is his son?에 대한 답이다.

(11-e) My son is *in the field* (*at the field*).

이 경우, at를 쓰면 話者는 “밭” 앞에 있지 않고 먼 곳에서 “밭”을 局所的 [+point]으로 把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2-a) After having spent five days *at* (*→on*) this campus, I am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life.

(12 b) When I came to this university from the big, noisy city of Seoul, the green grass and trees *in* (*→on*) this campus first impressed me.

(12-c) *In* (*→On*) the first floor of my house, there are five rooms including a reception room.

Campus의 경우, 前置詞는 on을 쓰는 것이 普通이다. 西洋의 campus는 門이 라든지 울타리를 聯想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in”이 아니라 平面으로 把握하게 된다.³⁴⁾ 또한 英語에서는 一層, 二層이라 할 때 平面을 나타내는 floor를 쓰기 때문에 “on”이지마는, 韓國人의 意識으로는 「層」은 바닥(floor) 뿐만 아니라 立體的으로 그 階層 全体를 가리키기 때문에 in을 쓰는 誤謬를 저지른다.

(12-d) There are about 35,000 students studying at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34) Harvard 大學의 Harvard Yard는 벽돌담으로 둘러싸이고 있으므로 ‘on’을 쓴다고 한다.

이 例文에서는 地理的인 場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t”가 on 대신 쓰이고 있다. (勿論 “on”을 쓴다하더라도 誤用은 아니다.) “Field”의 경우에도 蹴球競技場은 平面으로 파악되어 on the football field 가 되지만, 옥수수밭은 立體的으로 把握되므로 in the corn field가 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意識이 A golfball is lost in the grass, 와 Don't walk on the grass. 의 前置詞 選擇에도 作用하고 있으며, “풀밭에 드러눕다”도 그 풀의 길이에 따라 We lay on the grass. 가 되기도 하고 in the grass가 되기도 한다.

交通手段도, 그것이 작은 taxi이나 boat이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意識을 갖게 되어 in을 쓰지만, 버스, 汽車, 飛行機이면 美國에서는 普通 on을 쓴다. 車안에 있는 것을 “in”으로 意識하느냐, “on”으로 意識하느냐 하는 問題를 國民性的 差異에 關聯시켜 “in-culture”라는 術語를 提議하는 學者도 있다.³⁵⁾

(13-a) As I mentioned on (→in) the foregoing paragraph, they learned a great deal from this affair.

이렇게 “前節에서 말한 바와 같이”는 항상 前置詞 “in”이 쓰이므로 韓國人도 抵抗感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例文은 각각 意味의 nuance가 달라 興味가 있다.

(13-b) I saw your signature on the letter.

(13-c) I read your ideas in the letter.³⁶⁾

(13-c)는 그 편지속에 담긴 뜻을 把握하였다는 뜻이므로 in the letter가 된 것이다.

I found your name on (또는 in) the list. 의 경우에도 on을 쓰는 것이 普通이지만, 무척 많은 이름 가운데서 찾아냈음을 強調할 때는 in을 쓴다.

한국어를 英譯할 때, 한국어에서는 그 格(Case)이 表層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서 英譯의 格을 빠뜨리는 일이 있다.

35) 牧野成一 (the University of Illinois 副教授), 梅田 巖 (京都産業大學教授, cf. 牧野·梅田. 1973. “日英語比較による格の研究” 「英語教育 Vol. XXI (1973) No. 12」 東京:大修館書店, p.27.

36) George Takahashi, 1969. “Perception of Space and the Function of Certain English Prepositions” *Language Learning*, Vol. XIX No. 3 & 4, (December, 1969) pp. 217-233에 서 引用.

(14-a) In Korea, love marriage is not as common as ϕ ($\rightarrow in$) America and Europe.

이 例文은, 「美國이나 歐羅巴에서처럼…」보다는 「美國이나 歐羅巴처럼…」이라고 表現하는 韓國語의 Model에 끌려서 in을 빠뜨리고 있다.

(14-b) I think I can do well ϕ ($\rightarrow in$) my studies in college.

한국어에서는, 「大學에서 研究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처럼 對格形態 {一를}을 쓰지만, 이런 경우³⁷⁾ 英語에서는 다른 格(Locative)을 갖는다. 이와 같은 誤謬는 {一를/을}은 언제나 英語의 ϕ (제로) 前置詞와 對應한다고 조금히 generalize한 結果이다.³⁸⁾

3-3-2. 「때」를 나타내는 格

外國語의 誤用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 첫째는 母國語의 model에 끌려서 생겨나는 誤用으로서 <一次的 誤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外國語를 꽤 오랫동안 學習한 사람이 外國語用法에 관한 잘못된 演繹으로 저지르는 誤用으로서 <二次的 誤謬>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³⁹⁾

「때」를 나타내는 韓國語의 格形은 {一에}밖에 없지만, 英語의 格表示로는 at, in, on 3種이나 있으므로 한국인은 母國語 model에 起因하는 <一次的 誤謬>를 저지룰 可能性이 크다. 「때」와 「場所」를 표시하는 格은 韓英語 多같이 平行하며,⁴⁰⁾ at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 그 格은 어떤 特定時点を 표시한다. 따라서

(15-a) She came here at eight.

37) 動詞가 do well와 같은 自動詞인 경우. (Pursue, follow, carry on, prosecute 등의 他動詞라면 물론 對格을 취한다.)

38) cf. 全在昊, 1972 “現代語 助詞의 調査 分析[1] - 助詞 形態 「一를」의 意味 機能-” 「語文學」第26號 pp.77-107.

39) 牧野成一·梅田巖, 前掲論文, p.24.

40) 場所를 나타내는 格과 時間을 나타내는 格은 서로 共通·同一한 言語가 극히 많다.

는 適正하지마는

(15-b) * She came here *at* the morning.

(15-c) * She came here *at the* winter.

는 모두 誤用이다. *at night*는 *at night fall*의 縮小形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fall*는 마땅히 時点表示의 格을 要求할 수 있는 名詞인 것이다.

場所를 나타내는 *in*이 “어떤 둘러싸인 空間 안”을 표시하는 것처럼, 「때」의 *in*은 어떤 길이를 가진 時間全体的 안쪽을 표시한다. *In the morning*은 “아침”이라는 連續된 時間全体的 안쪽을 표시하고, *in summer*는 “여름”이라는 期間全体的 안쪽을 보인다. 그리고 *on the Christmas morning*은 여럿 있는 “아침” 가운데서도 特定の 아침에 接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에 共通하는 現象은 期間의 길이가 있고 없고 간에 그 「때」를 全体로써 한 “点”으로 파악하고 있는 思考이다.⁴¹⁾

(16-a) School begins *at* eight *in* the morning.

(16-b) We go camping *in* summer.

(16-c) I was out of town *on* the Christmas morning.

한편 똑같이 「때」의 길이를 나타내는 *during*은 ① 期間全体에 걸쳐서 連續的인 일이 일어났음을, ② 또는 期間中の 어떤 時点에서 非連續的인 일이 일어났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쓰인다.

(17-b)의 *during*은 *in*과 交替할 수 있지만, 그 경우의 *in*은 거의 「場所의 *in*」과 같다. 따라서 그 *in the war*는 「戰死」를 뜻하지마는, *during the war*는 戰死인지 病死인지 또는 다른 事故인지 알 수가 없다. 또 (17-c)의 경우에는 *during*대신 *in*을 쓸 수 없다. 그 理由는 *lecture*의 意義素에 “時間의 길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in*은 그 다음에 【길이 있는 時間을 顯在的으로 나타내는 名詞】가 오지 않으면 時間 表示格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反하여, *during*은 後續名詞의 意義素속에 顯在的이건 潛在的이건 時間性이 들어있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17-a) I was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41) *in*은 보통 「期間의 안쪽」 곧 範圍를 표시하지마는, 그밖에, 期間中の 一時点을 표시하는 用法도 있다. cf. The blossoms will be out *in* a few days.

(17-b) He died *during* the war.

(17-c) John left *during* the lecture.⁴²⁾

“몇시 몇분”만큼은 그리 精確하지 않더라도 어떤 行爲가 어떤 時間 (즉, 接하여 일어나는 時間)에 일어남을 표시하는 데는 *on*이 쓰인다.

(18-a) I'll go to Chicago *on* Monday.

(18-b) He was killed *on* the 26th of December.

(18-c) He was not at home *on* the night of the murder.

지금까지 論한 {at/in/on~}과, 그밖에 {from~to~},⁴³⁾ {toward~},⁴⁴⁾ 또는 {between~}⁴⁵⁾ 등은 모두 地点과 時点 양쪽을 표시할 수 있지만, {during~}은 期間을 표시할 수 있어도 距離는 표시할 수 없다. 즉 『같은 形式素가 場所·時間의 양쪽 格機能을 다하는 것은 地点과 時点を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制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制約에 反하는 것처럼 보이는 例로 *for*가 있다.⁴⁶⁾ *For*는 *during*과는 달리 期間뿐만 아니라 距離도 표시할 수 있다.

(19-a) I have been doing that *for* three hours.

(19-b) I ran *for* three miles yesterday.

그러나 *for*의 用法에서 注目할 點은 ① 距離의 경우에는 具體적으로 거리의 單位가 表示되

42) 이 英文은 John left while the lecture was going on 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43) cf. i) I moved to Songsanpo *from* Kimnyong. (사감과 事物의 移動의 起點과 終點)
ii) My office hours are *from* 2 to 4 every Thursday. (時間推移의 起點과 終點.)

44) *to*와 *toward*는 다같이 [+locative, +directional]라고 생각되지만, *to*가 到達點을 표시하는 데 비하여 *toward*는 方向만을 표시할 뿐, 목표가 반드시 到達點이 되지는 않는다.

45) cf. i) Put them *between* the two points. (地點과 地點사이).
ii) You must complete it *between* the two hours. (時點과 時點 사이).
iii) It is five miles *between* the airport and the new town. (起點은 非固定的).
iv) I will call on you *between* seven and eight. (起點은 7時 쪽).

46) 도리어 이 制約이 있기 때문에 (20-b)의 非文法性을 說明할 수 있고, 또 (20-c) (20-d)와 같은 *for*의 省略可能性을 解明할 수도 있다.

어야 하지마는, ② 時間의 경우에는 그러한 制約이 없으며, ③ 距離에 있어서나, 時間에 있어서나, 具體的 單位만 있으면 for는 省略可能하다는 사실이다.

- (20-a) for long, for a time, for a while, for ever
- (20-b) *for far, *for a distance, *for a way
- (20-c) The meeting lasted (for) more than four hours.
- (20-d) I walked (for) miles.

「때」를 나타내는 前置詞 가운데 【since : from】와 【during : for】도 한국어에서는 區別 없이 그저 【~부터】와 【~동안에】로 각각 對應시키고 있으므로 <一次的 誤謬>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by : until】는 그런대로 【까지는 : 까지】가 이에 對應하므로 誤用은 그다지 많지 않다.

- (21-a)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conversation from (→since)1977.

Since(~以來, ~以後, ~부터), after(~後, ~後에), from(~으로부터) 등은 그 意義素가 韓英間에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上記의 誤謬가 생겨난 것이다.

- (21-b) 한국은 維新 {以來·以後·後에} 많이 變했다.
= Korea has changed a great deal since the Revitalizing Reform.

한국어에 英語의 現在完了와 같은 形式이 없는 것도 이렇게 since 대신 from 또는 after를 誤用하는 사례를 誘發시키고 있다.

- (21-c) We studied English as a required subject from middle school ∅(→on).

From는 過去, 未來와는 관계 없이 어떤 時点を 출발점으로 하여 動作, 狀態가 繼續할 때 쓰인다. 그러나 繼續의 意味를 明示하는 on을 첨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 (21-d) I led a very hard life since (→after) returning to Jeju-do.

어 文에는 繼續의 뜻은 없다. 現在는 아마 잘 살고 있거나, 적어도 심한 苦生은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since는 誤用이고 after가 適合하다.

(만약 아직도 계속 苦生하고 있다면, I have led a very hard life since returning to Jeju-do.)

(21-e) That is what I am going to find out through (→during) my stay.

“나의 滯在期間을 通하여”라는 뜻에서 through가 쓰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一年을 通하여, 一年 내내”를 all through the year라고 表現하는 形式의 類推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이 through와 形態의으로 비슷한 格에 throughout가 있지만 거기에는 “continuously”라는 意義素가 內包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during쪽이 適合하다.

DURING vs. THROUGHOUT

- i) He was happy during his life.
- ii) He was happy throughout his life.
- iii) He was killed during the war.
- iv)*He was killed throughout the war.⁴⁷⁾

3-3-3 落着点を 나타내는 格⁴⁸⁾

韓國語의 {-로/에게로}나 英語의 {to-}는 모두 어떤 根源에서 始發한 동작의 歸着点を 나타낸다. 다만 한국어에 있어서는 無生物에는 {-로}를, 有情體에는 {-에게로/한테로}를 쓰지만, 英語에 있어서는 生物·無生物의 區別 없이 一般的으로 {to-}를 사용한다.

(22-a) I went to America from Europe.

(22-b)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47) 主語를 複數로 바꾸면 (He→They 또는 The soldiers, etc.) 文法的인 文이 되는 것에 注意.

48) 崔鉉培의 “닿는 데 (落着点)”와 “안한 쪽 (向方)”, 金敏洙의 “向格”, 金昇坤의 “相對格” 및 “向進格”에 해당.

cf. 崔鉉培, 1954, 「우리 말본」 서울: 正音社. p.620.

金敏洙, 1970,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p.33.

金昇坤, 1972, “國語助詞의 職能考” 「국어국문학 58-60」 p.117.

(15-c) Every American who visits *to* (→~~φ~~) Korea these days does not fail to be surprised at its industrial development.

英語動詞 가운데는 answer (cf. ~에게 答하다), reach (cf. ~에 到着하다) 처럼 *to*가 表層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⁴⁹⁾ 混線을 빚고 있다. 그러나 visit 따위는 한국어의 “~를 訪問하다”와 對應시켜서 생각한다면 誤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I came to America *to* study linguistics. 따위의 不定詞도 (英語發達史의 知識을 〔제쳐놓고서라도〕 “歸着点的 *to*”와 有關함을 感知할 수 있는 것이 大學生 水準으로는 바람직스럽다.

Talk와 같은 일부의 communication을 나타내는 動詞는 *to*뿐만 아니라 *with*도 가질 수 있는데 *with*는 行爲의 相互性을 강조한다.

(23-a) I talked *to* my teacher. (cf. 先生님에게 이야기 했었지.)

(23-b) I talked *with* my teacher. (cf. 先生님과 이야기 했었지.)

(23-b)는 “나도 先生님에게 이야기하고, 先生님도 나에게 이야기하였음”을 뜻한다. Communication을 나타내는 動詞에는 “說教하다”, “講演하다”처럼 그 行爲가 一方的인 것도 있다.

(23-c) He preached *to* his son. (아들에게 說教하였다.)

(23-d) *He preached *with* his son. (그는 아들과 說教하였다.⁵⁰⁾

이와 反對로 行爲가 항상 相互的인 동사 — 商談하다(negotiate), 討論하다(consult)등 — 은 {~에게}를 취할 수 없다.

(24-a) He negotiated *with* an Arab. (cf. ~과 商談하였다.)

(24-b) *He negotiated *to* an Arab. (cf. ~에게 商談하였다)

“相議하다”에 대응하는 英語의 consult는 *with*밖에 갖지 못하지만 韓國語에서는 {~에게}와

49) “모든 NP는 deep structure에서 preposition을 〔가지고〕 있다.” _____ 韓萬濬. 1977. “英語前置詞와 韓國語 助詞와의 對照構造 研究” 『영어교육 제13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100.

50) 이 國語表現은 『그는 아들과 함께 누군가에게 說教하였다.』를 뜻할 수 있으므로 非文法的이라고 斷定할 수 없을런지 모른다.

{-와} 두 가지 가운데서 擇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中에서 “-에게 相議하다” 쪽은 敬語 意識을 나타내고, “-와 相議하다” 쪽은 關係者 雙方이 똑같이 對等한 位置에 서 있음을 示唆한다.

(25-a) 先生님에게 (또는 께) 相議하고 싶습니다.

(25-b) 先生님과 相議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에게}와 {와}, to와 with의 區別은 形容詞의 경우에도 該當된다. 對人關係를 나타내는 韓·英形容詞의 連鎖構造는 각각 다음과 같이 圖示할 수 있다.⁵¹⁾

	to	with	on	toward		에게	와	에 대하여
1) arrogant	○			○	거드럭 거리는	○ ~에게 거드름 부리다		○
2) cold	○	?		○	냉담한	○		○
3) cruel	○	?		?	잔혹한	○		○
4) frank		○		?	솔직한	○		○
5) friendly	○	○		○	우호적인	○ ~에게 우호적이다	○ ~와 우호적이다	○
6) generous	○	○		○	너그러운	○		○
7) kind	○			○	친절한	○		○
8) mean				○	심술궂은	○		○
9) merciless				○	무자비한	~에게○ 무자비하다		○
10) polite	○	○		○	공손한	○		○
11) rough		○	○	○	모건	○ ~에게 모질게 굴다		○

韓·英語 사이에 共通的인 點은, 對人關係가 「相互間」인 경우에는 {-와} 또는 {with-}를 취하며, 對人關係가 「一方的」이면, {-에게} 또는 {to/toward-} 밖에는 취할 수 없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形容詞에 따라서는 「相互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一方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對人關係가 「相互的」인 英語 例로는 frank, intimate 등이 있고, 「一方的」인 例로는 kind, mean, merciless 등이 있으며, 「相互性」이 無關한 보기로는 friendly, polite 등이 있다. 對人關係라기 보다 相對者의 心理全體에 영향을 미치는 rough, hard의 경우에는 자주

51) 이와 같은 形容詞의 用法과 그 連鎖構造는, 韓英語 모두, 個人的 判斷과 文体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n이 쓰인다.⁵²⁾ 어떤 形容詞 또는 語句가 「相互的」이며, 어떤 語句가 「非相互的」인지는 韓·英語사이에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지만, 上記圖表의 (1), (5), (9), (10), (11)이 示唆하는 것처럼 [土相互性]에 두 나라 言語의 “意義素”의 一部임은 推定할 수 있다.

方向性を 나타내는 格⁵³⁾에는 to, toward가 있는데, 動詞가 그 方向性的 意義素를 吸收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face (~을 面하고 있다)는 그 一例이다.

(26-a) I have my own room on the 2nd floor, facing to (→φ) the street.

To와 toward를 비교하면. to는 歸着點(goal)를 표시하고, toward는 方向(direction)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b) I ran to the station.

(26-c) I ran toward the station.

(26-b)는 I ran as far as the station, (26-c)는 I ran in the direction of the station을 뜻하므로 後者は 決코 “驛까지 갔다”를 뜻하는 文은 아니다. 勿論 “I drove to (또는 toward) the West and went to San Francisco.”처럼 to와 toward가 거의 同一한 意味를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West가 特定한 地點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可能的 것이다.

52) The teacher is rough on me. (先生은 나에게 모질다.)

The kids are rough with the dog. (애들은 그 개에게 모질 짓을 한다.)

後者は 肉體的 被害인 경우에 쓰이고, 前者는 心理的 被害를 얻는 對象(生物)을 표시할 경우에 쓰인다.

또한 He hung up on me. (나는 그이한테 電話를 끊기었다.)

My father died on me. (나는 父親喪을 당하였다.)

의 ‘on’은 被害者임을 뜻하는 한국어의 『被動態』에 대응한다.

53) 崔鉉培의 앞한 쪽 (向方), 金敏洙의 向格, 金昇坤의 向進格助詞에 해당.

한국어의 {-에게}는 處所格, 與格, 相對格 助詞等 여러가지로 불리우⁵⁴⁾ 있으나, 여기에서는 Fillmore와의 關聯上 與格 (Dative)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格의 特徵은 韓·英語 다같이 『어떤 일이 生物(有情體)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意志와는 관계 없애 알아내는』 경우에 쓰인다는 점이다.

(27-a) 그 映畫는 그에게 재미있었다.

The movie was interesting to him.

(27-b) 그 일은 그에게 衝擊的이었다.

To him it was a shock.

그러나 深層에는 與格이 있는데도, 表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28-a) 나에게는 車가 있다.

I have a car.

(28-b) 나는 머리가 아프다.

I have a headache.

한국어에서는 {-에게}가 表層에 나와 있는데도, 英語에서는 {to~}가 사라져 없어진 例가 (28-a)이며, (28-b)의 경우에는 韓·英語 다같이 {-에게}도 {to~}도 表層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Fillmore式으로 分析한다면 兩者가 모두 所有關係를 나타내는 深層構造이며 각각 與格이 있는 셈이 된다. 특히 (28-b)의 한국어는 Fillmore의 分離不可能所有(inalienable possession)⁵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深層構造에는 與格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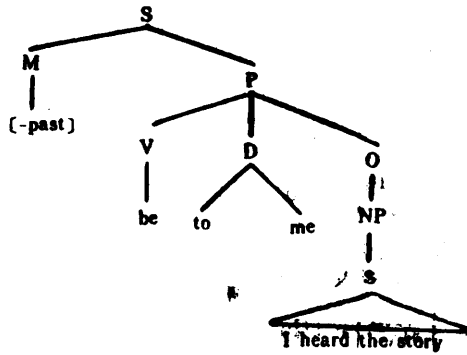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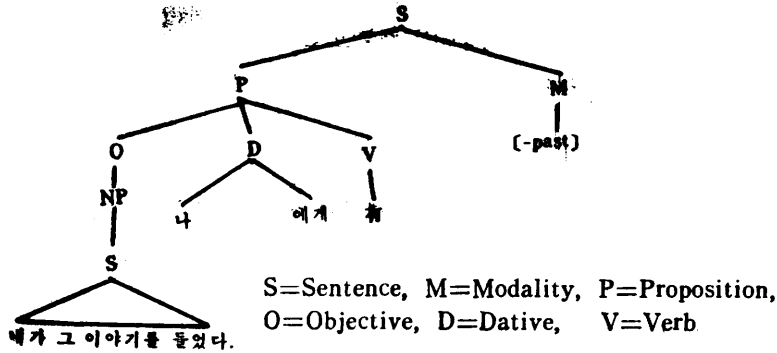
(28-c)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I have heard that story.

54) 崔鉉培는 곳 자리(處所格)→ 닿는 데(着點)→ 사람: {-에게/한테/더러}로 分類하고 (『우리 말본』, p.620), 金敏洙는 “有生性的 體言類에 ‘게’, 無生性的 體言類에 ‘에’로 표시되나, 그 複合形 ‘에게’가 즐겨 쓰이고있다”. 라는 설명과 함께 與格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국어국문학 49·50』, p.34), 金昇坤은 相對格助詞라고 부르고 있다, (『국어국문학 58-60』 p.117.)

55) Fillmore, *op. cit.*, §5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pp.61-81)

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의 對應을 알 수 있고, 經驗을 나타내는 完了形에 어째서 하필 have 가 오느냐⁵⁶⁾도 알 수 있다. Fillmore의 方式을 應用하면 (28-c)의 韓·英文의 深層構造는 각각 다음과 같이 圖示될 수 있다.



이 圖示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韓國語와 英語는 (적어도 深層에 있어서는) 놀랄 만큼 서로 비슷하다.

3-3-4. 手段을 나타내는 格⁵⁷⁾

한국어에서 器具·手段을 나타내는 格助詞로서는 {-(으)로}와 {~(으)로써}가 있으며,

56) Gallagher, Mary. 1969, *Have and the Perfect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57) 崔鉉培(*op. cit.*, pp.625-626)의 “영장자리토(器具格); 金昇坤(*op. cit.*, p.117)의 方便格, 器具格; 金敏洙(*op. cit.*, p.33)의 具格(手段, 方法, 材料, 原因, 認識); 李基白(“圖辭助詞의 史的 研究” 『어문론총』 9·10합번호, 경북대학교, p.13)의 使用圖詞格(부차기능: 原因圖詞格)에 해당한다.

영어에는 前置詞 {with~}와 {by~}가 있다. 한국어의 {- (으)로써}⁵⁸⁾는 “~을가지고, ~으로 인하여”라는 뜻을 {- (으)로}보다 더 顯示的으로 나타내는 느낌을 주어, 兩者의 差異는 결국, 文体, 強調의 차이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實際的 運用面에서는 {- (으)로써}를 풀이한 「-에 의하여」가 一種의 格表示 代用句로써 쓰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英韓辭典에 나오는 한국어 對等句의 影響으로도 해석된다.⁵⁹⁾ 한편, with와 by의 意義素的 差異는 「文法性」에 직결되는, 보다 本質的인 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整理할 수 있다.

i) with : 어떤 器具·手段이 行爲者와는 떨어져 있는 別個의 個體이거나, 또는 그 個體(器具·手段)를 行爲者가 “心理的으로 떨어져 있는 채” 操作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인다.

ii) by : 上記以外的 手段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上記制約을 보이는 典型的인 例는 다음과 같다.

★ with vs {- (으)로}⁶⁰⁾

(1) John wrote it {with / *by} a pen.

펜 {오로 / 으로써 / *에 의하여} 썼다.

(2) John hit him {with / *by} a stick.

막대기 {로 / 로써 / *에 의하여} 쳤다.

58) 崔鉉培(*op. cit.*, p. 625)의 例文 :

붓으로 (으)로써 글씨를 쓴다. (道具)

짐으로 (으)로써 지붕을 이인다. (材料)

그 사람은 그저 메로(로)써 우겨 대오. (方便)

그 애가 감기로 (로)써 아니 왔읍니다. (原因)

59) 각종 英韓辭典은 by의 對等句로 “에 의하여”를 들고 있다. cf. 金周賢外, 1976. 「스탠더드 英韓辭典」 成文閣 (s. v. by, p. 184) → 《수단·방법·원인·이유·매개》...에 의하여.

60) with 다음에는 個體(discrete thing)가 오기 때문에 冠詞類 (不定冠詞, 定冠詞, 또는 기타 限定詞)가 붙는다.

★ by ∞ {- (으)로}

(3) John went to New York { *with } bus.
by

버스 { 로 / 로써 } 갔다.
*에 의하여

(4) John went there { *with } air.
by

비행기 { 로 / 로써 } 갔다.
*에 의하여

★ 不 對 等

(5) He destroyed the house { *with } fire
by

불 { 로 / 로써 } 가옥을 없애 버렸다.
?에 의하여

(5)' He corroded the metal { with } the acid.
*by

酸 { 으로 / 으로써 } 금속을 녹슬게 만들었다.
?에 의하여

(6) He talked with her { *with } wireless radio.
by

無線電話 { 로 / 로써 } 이야기 하였다.
?에 의하여

(6)' He talked with her { with } a wireless radio.
*by

無線電話器 { 로 / ?로써 } 通話하였다.
?에 의하여

(7) He made the rug { *with } hand.
by

손 { 으로 / ?으로써 } 만들었다.
*에 의하여

(7)' He hit her in the face { with } one hand.
*by

한손 { 으로 / ?으로써 } 두드렸다.
*에 의하여

(7'') He played the piano $\left\{ \begin{array}{l} \text{with} \\ *by \end{array} \right\}$ his left hand.

왼손 $\left\{ \begin{array}{l} \text{으로} \\ \text{으로써} \\ *에 의하여} \end{array} \right\}$ 피아노를 쳤다.

위의 例文 가운데 (5'), (6')는 그 冠詞가 示唆하는 것처럼 *the acid*와 *a wireless radi*^U를 “行爲者로부터 隔離된 個體(道具)”로 표현하고 있으며, (5)·(6)은 보다 抽象的인 手段으로 간주하고 있다. (7'), (7'')의 *one hand*, *his left hand*도 心理的으로는 行爲者와는 別個의 個體로 간주하여 이렇게 表現된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英語의 「by」나, 韓國語의 「~에 의하여」도 똑같이 “被動文의 行爲者”를 나타낸다는 点이다. 바꾸어 말하면, 「by」와 「~에 의하여」에는 行爲者와 手段 두 가지 意味가 있는 것이다. 또, 영어의 *with*는 *by*와는 달리 動名詞(*gerund*)를 취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with*의 意義素가 *gerund*처럼 抽象的인 語句를 동반하는 것을 拒否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으)로}가 쓰일 곳인데도, 영어의 *with*나 *by*를 使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9-a) 崔總理는 英語로 演說하였다.

Premier Choi spoke in English.⁶¹⁾

(29-b) 金氏는 밀가루, 粉乳, 설탕으로 쿠키를 만들었다.

Mr. Kim made cookies (*of, out of, ?with, ?from, *by*)
flour, milk and sugar.

즉 (29-a), (29-b)는 手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手段과 材料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手段과 材料가 一体化될 수 있으므로⁶²⁾ {-(으)로} 하나가 兩者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手段과 材料가 一体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別個의 前置詞를 써야 하는 것이다.

61) “英語로 말하다.”의 「로」는 *with*가 아니고 *in*이다. 印歐語에서는 이런 경우 處所格(*cf. en, auf*)이 쓰이고 具格은 쓰이지 않는다.

62) 脚註 57) 參照.

(30-a) Every room is decorated *by*(→*with*) pictures and souvenirs from foreign countries.

(30-b) This apartment was built *by* (→*with*) government aid.

이 英文에 있어서 繪畫나 記念品이나 또는 政府補助金은 모두 實際 操作할 수 있는 個體(discrete things)이므로 *with*가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 “行爲者는” 表層構造까지 나와 있지 않지마는, 深層에 「*by*+行爲者」가 있음은 그 英文을 다음과 같이 rephrase할 수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30-a)' They decorate every room *with* pictures and souvenirs from foreign countries.

(30-b)' They built this apartment *with* government aid.

앞서 말한 바와 같이 *by*는 動名詞와 共起(co-occurrence)할 수 있는 데 反하여, *with*는 動名詞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同一한 意味를 나타내는 데도 前置詞의 選定은 달리 하여야 한다.

(31-a) He greeted me (**with*, *by*) smiling.

(31-b) He greeted me (*with*, **by*) a smile.

(31-c) I welcomed him (**with*, *by*) shaking hands.

(31-d) I welcomed him (*with*, **by*) a handshake.

다음은 器具·手段을 “主體와 隔離된 個體 (discrete things)”로 보느냐, “操作 가능한 存在”로 보느냐에 따라 前置詞의 選擇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32-a) The town is surrounded *by* mountains.

山은 個體로서 파악되지마는 우리 人間이 操作할 수 있는 存在가 아니기 때문에 *by*가 쓰인다.

(32-b) The shoes are made *by* hand.

hand는 個體로서 파악되지 않고 machine-made 對 hand-made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by가 쓰였다.

(32-c) His friends were displeased *by* (또는 *with*) the selection of another chairman.

by는 「選出하는 것이 不滿이었다.」(The action displeased them.)를 뜻하고 with는 「選出한 結果가 不滿이었다.」(The man selected was not their choice.)를 뜻한다.⁶³⁾ 그러나 이러한 nuance의 差異는 實際의 指導에는 必要 없을 것이다.

IV 結 言

言語現象은 너무나도 複雜하기 때문에 그것을 分析하는 方法도 多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言語內의 諸關係만을 대상으로 삼는 接近法이 있는가하면, 言語外의 世界와 言語의 型과의 關係를 탐구하려는 接近法도 있다. 그리고, 人間的 複合的 意識과 言語의 多面的 性質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混合한 接近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方法論的 不完全⁶⁴⁾을 무릅쓰고, 한국인이 英語를 學習할 때 最大難關이라고 일컬어지는 「格」의 문제를 理論과 實際面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英文文의 궁극적인 目標은 문교부의 教育課程令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직접 英文을 통해 表現할 수 있는 能力의 배양에 있다. 그러나 英語를 배우기 시작하는 中學生의 年令期는 이미 韓國語의 体系가 各자의 意識下(subconsciousness)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박고 있을 때이다.

母國語知識의 interference를 最小化하고, 도리어 그 母國語知識을 facility의 手段으로 轉換시키기 위하여는 韓·英語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演繹的으로 把握시키는 것이 보다 重要하며, 또한 適當 1,2회에 不遇한 영작문시간을 보다 能率的으로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63) *New Standar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Funk & Wagnals Co. 1952.
(s. v. by)

64)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에서 英佛, 英露, 英伊 등 對照比較叢書를 10卷以上 發行하고 있지만, 各卷이 依據하고 있는 言語理論 model와 方法論은 各各 다르다. 이는 적어도 文法과 意味分野에서는 確立된 一般 方法論이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뜻에서 英語教師는 보다 깊은 모국어 지식의 蓄積에 精進하여야 할 것이다.

言語와 言語사이의 差異란 實은 皮相的인 것이며, 보다 深層에 있어서는 많은 共通性이 존재하고 있음이 점차 밝혀져가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지금까지 構造言語學의 影響으로 지나치게 韓·英語의 差異가 誇張되고 強調된 느낌이 있다. 앞으로는 英語教育의 實際指導面에서 差異點보다도 類似點의 강조에 力點을 두는 것이 學習者들로 하여금 抵抗感을 덜게 하고 보다 親近感을 갖고서 英語學習에 달라붙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978. 12. 31)

— Summary —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Case Markers

— In Relation to the Teaching of English Composition —

Kang Soo-un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cases" are expressed by postpositional particl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by preposi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se two kinds of case markers and analyze their semantic features or sememes.

The usage of English prepositions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because the sememes do not always correspond with each other and are apt to cause serious linguistic misunderstandings. Koreans are puzzled at English sentences such as "I am a student *at* J University." and "He took her *by the arm*." or "They loaded a ship *with cement*." The Korean locative does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a book *on* the desk" and "a book *in* the desk" if no adverbs are added to the locative. Sometimes the difference in the semantic range changes the choice of prepositions. In English, the "floor" is understood to be a plane surface and "*on*" precedes the word; but in Korean, the floor means a whole space in three dimensions. Of course, Koreans think that "*in*" is more logical.

These differences, however, can be overcome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concerned words. Thus, "*until*" and "*by*" can be made to correspond with the Korean counterpart particles through an added description of the semantic element, [+continuity] or [-continuity]. Alongside these superfici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re exist other elements common to the two languages. For example, in the deep structures of Korean and English, all nouns or noun phrases seem to have particles or prepositions associated with them even though they are frequently deleted from surface structures. In the two languages,

as likewise in many other languages, there does not exist a separate category of the *time case*. The locative is used, in the same form and functions, as a case marker common to both *place* and *time*.

In the teaching of English composition,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have been so strongly emphasized or exaggerated that the learners try to forget their already-acquired grammatical notions and their mother tongue models which have become a part of their "subconsciousness". The students' learning would be enhanced if they realize 1) that all human languages have deep structures and essential elements common to each other, 2) that all of the case categories are universal, and 3) that they are all endowed with understandable logic. This broad perspective of language would undoubtedly help them with their specific English learning problems.

In this sense, the emphasis can be shifted from the differences to the similarities, as well as from inductive to deductive reasoning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languages. Especially in Korea, where English writing is taught and learned only an hour or two a week, deductive explanation should be allowed and encouraged to insur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class time. This kind of shift may remove the learner's psychological resistance toward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allow him to study with an easier and friendlier attitude.